

아동의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 예측요인

홍연란* · 최청숙** · 박진옥***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역할들 중에서 남자 혹은 여자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성역할이다.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성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며 이 시기부터 남녀를 생물학적 차원이 아닌 정신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어감에 따라 가정환경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가족의 기능이 축소와 생활기구의 과학화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감소, 여성의 교육 및 취업기회의 증대와 이에 따른 여성 생활주기의 변화, 자아실현 욕구, 성역할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 등의 경향들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남성,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새로운 개념으로의 탈피가 거론되어 한 인격체로서의 동등성 혹은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이 통합된 유형이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Bem과 Lenney(1976)는 이와 같은 유형을 양성형 인간유

형이라고 말하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잘 대처해가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재능과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엄격한 강요는 남성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전행동 영역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자아개념, 인성발달, 자아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의 올바른 습득은 종합적 인성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일부 학자들(Rebecca, Hefner & Oleshensky, 1976)은 전통적인 성역할 초월모형을 제시하고 성에 관계없이 행동과 감정의 모든 범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남녀모두에게 다수의 역할을 허용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임을 주장하였다.

가정은 아동기의 생활공간이고 일차적인 사회화 학습기관으로 성역할 사회화의 요람이며, 아동에게 성역할 형성의 장소가 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양식, 정서적 교류양상,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심리적 환경 등은 아동의 성역할 형성에 중요한 변인들로 고려되어진다(김영희, 1986a). 아동기의 성역할 학습은 주로 생활 속에서 관찰과 모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에 대한 편견은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시작되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며(Hartup & Zook, 1960), 아동은 초등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 동해대학교 간호학과

*** 대원과학대학 응급구조과

학교에 다니는 시기인 아동 중기 이후에 성역할을 사회 관습으로 여기고 규범적인 기대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Smetana, 1983).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을 익혀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인을 만들어주는 물리적·심리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을 규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을 기를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가 되고자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령기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한다.
- 2)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일반적 특성, 가정환경, 양육태도(온정, 통제), 부모의 역할분담 정도를 파악한다.
- 3) 학령기 아동의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 획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의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에 따른 가정환경, 양육태도(온정, 통제), 부모의 역할분담과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 획득에 미치는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S시와 T시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2,463명을 대상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345명을 제외한 2,1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가정환경 18문항, 양육태도 32문항, 역할분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정환경변인

정연숙(1992)의 가정환경변인도구를 연구자가 추가 보완하여 성별, 부모의 연령 직업 및 학력 6문항,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7문항 가족구조, 경제적 상태, 형제구성, 가정의 분위기 총 18문항으로 하였다.

• 양육태도

이영미(1991)가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온정태도 17문항과 통제태도에 대한 15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저그렇다' 3점, '그런편이다' 4점, '전적으로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태도 혹은 통제태도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역할분담

김수정(1998)이 Marantz와 Mansfield(1977)의 역할분담 도구를 수정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 당 아동의 대답이 판정과 일치할 때는 0점, 판정과 반대의 답을 하는 경우는 1점, 양성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2점을 배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성역할정체성

아동의 성역할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illiams, Bennett, Best(1975)가 아동용으로 제작한 Sex-trait stereotypes measure II를 정계숙(1983)이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중앙치(남성성: 8, 여성성: 11)를 기준으로 남성성이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성이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성 집단으로, 남성성이 중앙치 이하이고 여성성이 중앙치 이상이면 여성성 집단으로, 남성성이 중앙치 이하이고 여성성이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형 집단으로, 남성성이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성이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 -test, ANOVA, 및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일반적 특성, 가정환경, 양육태도 및 역할분담에 따른 아동의 성역할정체성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성별은 양성성에서 남아가 54.2%, 남성성에서 남아가 71.9%, 여성성에서 여아가 69.8%, 미분화성에서는 남아가 53.6%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은 양성성에서 46세 이상이 40.5%, 남성성에서는 41~45세가 33.3%, 여성성에서 41~45세가 37.1%, 미분화성에서 35세 미만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양성성에서 46세 이상이 59.6%, 남성성에서 35~40세가 37.7%, 여성성에서 41~45세가 38.4%, 미분화성에서 35~40세가 50.2%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양성성에서 대졸 이상이 50.4%, 남성성에서 고졸이 44.7%, 여성성에서 고졸이 37.2%, 미분화성에서 62.7%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학력은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에서 각각 대졸이상이 77.6%, 42.0%, 51.0%, 미분화성에서는 고졸이 57.8%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에서 각각 직업이 없는 경우가 54.6%, 59.7%, 71.3%, 미분화성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55.9%로 더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양성성에서 교사 및 전문직이 40.5%, 남성성에서 회사 및 공무원이 50.1%, 여성성에서 자영업이 36.9%, 미분화성에서 자영업이 25.3%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상태는 양성성과 남성성에서 '중'이 각각 45%, 47.2%, 여성성과 미분화성에서 '하'가 각각 42.9%, 50.6%로 가장 많았다. 형제구성은 양성성과 남성성 및 여성성에서 이성이 각각 35.9%, 49.9%, 36.9%, 미분화성에서 독자가 37.6%

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만족은 양성성과 남성성에서 63.9%, 59.1%, 여성성과 미분화성에서 50.9%, 74.7%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양성형,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형에서 모두 50.6%, 73.3%, 50.9%, 50.2%로 양친동거형태가 가장 많았고 가정분위기는 양성성에서는 화목한 경우가 55.2%, 남성성과 여성성은 보통인 경우가 각각 67%, 56.9%, 미분화성에서는 나쁜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다 <표 1>.

2. 양육태도 및 역할분담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양육태도 중 온정점수는 양성성에서 6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분화성에서 40.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제점수는 여성성에서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성성에서 29.9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의 역할분담점수는 양성성에서 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분화성에서 8.13으로 가장 낮았다 <표 2>.

3.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아동의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성별, 가정환경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학력 및 직업, 경제적 상태, 형제 구성,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 가족구조, 가정 분위기와 온정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역할분담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324.804이며 P값이 0.0001로서 비교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가족구조, 어머니 학력, 부모의 역할분담, 아버지 연령, 아버지 직업, 형제 구성, 가정분위기, 경제적 상태, 온정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이었고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및 가정환경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성		양성성		χ^2	p
		실수	빈도 (%)	실수	빈도 (%)	실수	빈도 (%)	실수	빈도 (%)		
성별	남	248	71.9	160	30.2	282	53.6	389	54.2	153.7	0.001
	여	97	28.1	369	69.8	244	46.4	329	45.8		
어머니 연령	35세미만	64	18.6	33	6.2	204	38.8	65	9.1	258.7	0.001
	35-40	105	30.4	106	20.0	133	25.3	160	22.3		
	41-45	115	33.3	196	37.1	131	24.9	202	28.1		
	46세이상	61	17.7	194	36.7	58	11.0	291	40.5		
아버지 연령	35세미만	67	19.4	64	12.1	76	14.4	52	7.2	526.9	0.001
	35-40	130	37.7	65	12.3	264	50.2	109	15.2		
	41-45	97	28.1	203	38.4	132	25.1	129	18.0		
	46세이상	51	14.8	197	37.2	54	10.3	428	59.6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6	27.8	194	36.7	64	12.2	102	14.2	287.6	0.001
	고졸	154	44.7	197	37.2	330	62.7	254	35.4		
	대졸이상	95	27.5	138	26.1	132	25.1	362	50.4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97	28.1	129	24.4	23	4.4	72	10.2	307.5	0.001
	고졸	103	29.9	130	24.6	304	57.8	89	12.4		
	대졸이상	145	42.0	270	51.0	199	37.8	557	77.6		
어머니 직업	유	139	40.3	152	28.7	294	55.9	326	45.4	0.9	0.352
	무	206	59.7	377	71.3	232	44.1	392	54.6		
아버지 직업	노동 및 기타	65	18.9	102	19.2	262	49.8	136	19.0	477.3	0.001
	자영업	66	19.3	195	36.9	133	25.3	97	13.5		
	회사 및 공무원	173	50.1	134	25.3	66	12.5	194	27.0		
	교사 및 전문직	41	11.9	98	18.5	65	12.4	291	40.5		
경제적 상태	상	41	11.3	98	18.5	132	25.1	319	44.4	326.2	0.001
	중	141	47.2	227	38.5	128	24.3	323	45.0		
	하	163	40.9	204	42.9	266	50.6	76	10.6		
형제	혼성	32	9.3	65	12.3	65	12.4	235	32.7	282.6	0.001
	이성	172	49.9	195	36.9	133	25.3	258	35.9		
	동성	43	12.5	139	26.3	130	24.7	156	21.7		
	독자	98	28.4	130	24.6	198	37.6	69	9.6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만족	204	59.1	260	49.1	133	25.3	459	63.9	195.9	0.001
	불만족	141	40.9	269	50.9	393	74.7	259	36.1		
가족구조	양친동거	253	73.3	269	50.9	264	50.2	463	64.5	452.5	0.001
	부만동거	21	6.0	182	34.4	64	12.2	97	13.5		
	모만동거	39	11.3	65	12.3	133	25.3	94	13.1		
	기타	32	9.3	13	2.4	65	12.4	64	8.9		
가정분위기	나쁨	73	21.2	97	18.3	260	49.4	58	8.1	510.6	0.001
	보통	231	67.0	301	56.9	134	25.5	264	36.8		
	화목	41	11.9	131	24.8	132	25.1	396	55.2		

〈표 2〉 양육태도, 역할분담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양성성		F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양육태도	온정점수	47.4	7.2	53.4	12.3	40.2	3.4	63.8	6.0	978.9	0.0001
	통제점수	29.9	7.9	43.4	4.6	32.9	6.8	36.8	7.5	347.2	0.0001
역할분담		8.5	3.6	9.7	1.8	8.13	1.46	11	1.63	358.1	0.0001

〈표 3〉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 수	B	SE	Ward	p	odd ratio
성별	-1.43	2.57	32.38	0.001	0.196
어머니 연령	1.62	2.67	0.37	0.541	3.476
아버지 연령	5.75	2.48	5.35	0.020	31.053
어머니 학력	6.45	2.66	16.60	0.001	43.980
아버지 학력	7.85	6.02	1.14	0.584	0.452
어머니 직업	0.37	1.18	0.09	0.951	0.457
아버지 직업	5.16	2.01	25.44	0.001	27.465
경제적 상태	-4.61	3.78	14.92	0.001	0.941
형제 구성	-5.11	1.84	7.68	0.005	0.329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9.69	4.23	45.93	0.001	0.673
가족구조	-9.61	2.16	39.72	0.001	0.887
가정분위기	4.98	2.58	16.16	0.001	23.786
양육태도: 온정	2.08	0.22	34.02	0.001	8.043
양육태도: 통제	-0.40	0.14	7.67	0.005	0.666
역할분담	5.85	0.71	66.44	0.001	3.009

4. 논의

본 연구에서 남자는 남성성 점수가 높고 여자는 여성성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강신영(198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양성형의 경우 남자가 54.2%로 여아보다 많았으며 양성형 아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명자, 1983)와는 차이가 있다. 부모의 연령은 미분화형에서 40세 이하가, 양성형에서는 40세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어머니의 연령은 양성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학력에서도 양성형이 가장 고학력이고 미분화형에서 가장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양성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아동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조영은(1993)의 연구결과와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딸에게 전통적

여성역할관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고정곤(198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은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양성형을 예측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아동의 성특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Lee와 Sugawara(1982), 김정현(198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아동의 여성적 편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동의 남성적 편견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이성희(198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성형 아동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에 대해 만족한 경우가 63.9%로 다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아동들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직업유무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아동의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과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Hoffman(1974)의 연구결과와 취업모가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경우 그 자녀는 평등주의적 성역할 개념을 가진다고 보고한 Gold와 Andres(1978)의 연구 및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내적 통제성향이 높고 딸에게 비전통적인 여성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고정곤(1986)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양성형에서 교사 및 전문직이 40.5%, 남성형에서는 회사 및 공무원이 50.1%, 여성형에서는 자영업이 36.9%, 미분화형에서는 노동이 37.1%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상태에서 양성형이 중간이상이 89.4%로 다른 유형에서보다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성형 아동의 경우 중상류계층이 하류계층보다 더 많다는 나혜영(1985)의 연구경향과는 일치하며, 아동의 성역할 형성에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Seegmiller(198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형제구성은 양성형, 남성형, 여성형에서는 이성형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미분화형에서는 독자가 37.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양성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여아는 오빠의 역할이 중요하고 남아는

누나와의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Lamke, Bell, Murphy(1980)의 연구결과, 외동일 때 성역할 정체감이 덜 유형화된다는 전경란(1997)의 연구와 유사하다. 가족구조에서는 4개 유형에서 모두 양친동거가 가장 많았으며 양성성에서 부만 동거하는 경우가 13.5%로 다른 군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타지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분위기는 양성형의 경우 '화목하다'가 55.2%로 가장 많은데 비해 남성성과 여성성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미분화형에서는 나쁜 경우가 가장 많아서 대조를 이루었다. 온정적 양육태도점수는 양성형,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형의 순으로 높고 통제적 양육태도점수는 여성성, 양성형, 미분화형, 남성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성형의 성특성을 소유한 학생이 가장 높은 부모의 온정적 태도를 지각했으며 미분화형 성특성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낮게 지각했으며, 여성성은 엄격한 제한과 처벌성에 연관된다고 보고한 Kelly와 Worell(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역할분담점수는 양성형,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형의 순으로 높았으며, 자녀는 모방을 통한 성역할 행동을 학습하므로 부모의 혼용활동보다는 부모자신이 가진 성역할 의식이나 행동을 자녀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모방하므로 부부간의 관계가 조화롭고 역할분담이 개방적일수록 양성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한 김영희(1986)의 주장과도 부합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아동의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획득을 위하여 가정이 화합하고 부부의 균등한 역할분담을 실천하며 직업에 대해 어머니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과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2개시 8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118명을 대상

으로 sas program을 이용하여 χ^2 -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 2,118명 중 남성형 345명 여성형 529명 미분화형 526명 양성형 718명으로 분류되었다.
- 남성형, 여성형, 미분화형,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아동에서 성별,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어머니 직업유무, 아버지 직업, 경제적 상태, 형제구성,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가족구조, 가정분위기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양성형, 남성형, 여성형, 미분화형에서 온정적 양육태도점수의 평균은 63.8, 47.4, 53.4, 40.2이고 통제적 양육태도점수의 평균은 36.8, 29.9, 43.4, 32.9, 부모의 역할분담점수의 평균은 11, 8.5, 9.7, 8.13이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1$).
-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의 예측요인은 성별($OR = 0.196, p = 0.001$), 아버지 연령($OR = 31.053, p = 0.020$), 어머니 학력($OR = 43.980, p = 0.001$), 아버지 직업($OR = 27.465, p = 0.001$), 경제적 상태($OR = 0.941, p = 0.001$), 형제구성($OR = 0.329, p = 0.005$), 어머니의 직업만족도($OR = 0.673, p = 0.001$), 가족구조($OR = 0.887, p = 0.001$), 가정분위기($OR = 23.786, p = 0.001$), 온정적 양육태도($OR = 8.043, p = 0.001$), 통제적 양육태도($OR = 0.666, p = 0.005$), 부모의 역할분담($OR = 3.009, p = 0.001$)이었고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 학력, 어머니 직업유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과 아동이 양성형 성역할 정체감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1. 나혜영 :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 고정근 : 어머니의 여성 역할관이 딸의 성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3. 김명자 : 학령전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 지각에 관한 일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4. 김수정 : 가정환경과 아동의 성역할 인지와와의 관계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5. 김영희. 성역할 사회화에 관한 문헌적 탐색. 원우론총, 1986(4), 179-206.
6. 김영희 : 성역할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 서울: 정민사, 1990.
7. 김정현 : 어머니의 직업유무, 만족도, 성역할 태도가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8. 이성희 : 어머니의 양성공존성과 아동의 성편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9. 이영미 :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불일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0. 전경란 :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97:6(2), pp. 133-144.
11. 정계숙(1983) : 아동의 성특성 전형에 대한 지식. 부산대학교 사범대 논문집, 1983:10: 145-166.
12. 정연숙 : 어머니의 성역할 성격특성 및 가족환경변인과 아동의 성특성 편견과의 관계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3. 조영은 : 국민학교 여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4. Bem, S. L. & Lenney, E. : "Sex-Typing

- and Avoidance of cross Sex-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33(1): pp. 47-48.
15. Gold, D, and Andres, D. : "Developmental Comparison between Ten-Year 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al*, 1978: 49(2): 75-84.
 16. Hartup, W. W & Zook, E. A. : "Sex role preference in three and four-year ol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0:24(3): 420-426.
 17. Hoffman, L.W. :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974: 10(2), 204-228.
 18. Kelly, J. A & Worell, L. : "Parent behaviors related to masculine, feminine, and androgynous sex role orient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6:44(5): 843-851.
 19. Lamke, L. K., Bell, N. J., Murphy, C. : "Sibling Constellation and Androgynous Sex-role Develop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980:105(2): 139-144.
 20. Lee, J. Y. & Sugawara, A. I. : Awareness of sex trait stereotypes among Korean Childr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82:117(2): 161-170.
 21. Maranz S. A. & Mansfield A. F. : Maternal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Sex Role stereotyping in five to eleven-year-old girls, *Child Development*, 1977:48(1): 12-19.
 22. Rebecca, M., Hefner, R. & Oleshansky, B. : A Model of Sex-role transcend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1976:32(3): 197-206.
 23. Seegmiller, B. R. : "Sex role Differentiation in Preschooler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Journal of Psychology*, 1980: 104(2): 165-189.
 24. Smetana, J. G. : Social-Cognitive Development :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al Review*, 1983:3(2): 131-147.
 25. Williams, J. E & Best, D. L. : "Traits Associated with Man and Woman : Attribution by young children in France, Germany, Norway, The Netherlands and Ita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81:12(4): 327-346.
 26. Williams, J. E., Bennett, S.M. & Best, L. : "Awareness and Expression of Sex Stereotyp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75: 11(5): 635-642.

=Abstract=

A Study of Predictors of Children's Dual Gender Identity

Yeon-Ran Hong^{*} · Chung-Suk Chei^{**} · Jin-Ok Park^{***}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ual gender identity, masculine gender identity, feminine gender identity, undifferentiated gender identity with related to Sex, home environments,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of warmth,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of control, role division of parents and determine predictors for dual gender identity.

Method : Study subjects were 6th grade of primary students with 2,118. Data was collected from Oct to Nov 2003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

- Among the children, 345 had masculine gender identity, 529 had feminine gender identity, 526 had undifferentiated gender identity, and 718 had dual gender identity.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sex, mother's age, father's age, mother's educational level, father's educational level, existence of mother's job, father's job, social economic status, sex of siblings, mother's job satisfaction, family structure, family atmosphere, child-rearing attitude(warmth and control), role division of parents($p \leq 0.001$) among 4 groups.
- The significant predictors for dual gender identity were children's sex(OR = 0.196, $p = 0.001$), father's age(OR = 31.053, $p = 0.020$), mother's educational level(OR = 43.980, $p = 0.001$), father's job(OR = 27.465, $p = 0.001$), social economic status(OR = 0.941, $p = 0.001$), sex of siblings(OR = 0.329, $p = 0.005$), mother's job satisfaction(OR = 0.673, $p = 0.001$), family structure(OR = 0.887, $p = 0.001$), family atmosphere(OR = 23.786, $p = 0.001$),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of warmth(OR = 8.043, $p = 0.001$) and child-rearing attitude of control(OR = 0.666, $p = 0.005$), role division of parents(OR = 3.009, $p = 0.001$).

Conclusions :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broad understandings about factors which influence dual gender role, and construction of combinative model. Also they suggest parent education for establishment of children's dual gender identity.

Key Words : Children's Dual Gender Identity

*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 Dept. of Nursing, Dong hae University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aewon Science College